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핑계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책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목사인 에이브러햄 J. 트위스키(Abraham Twerski)의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네 성격 탓이야”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트위스키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인 것 같다. 의식주(衣食住) 외에 ‘누군가 탓할 사람’이다.” 시커먼 마음 속을 들린 것 같아서 명쾌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남을 탓하는 것도 하나의 성격이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탓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면 핑계부터 찾는 내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잠시 편해지는 듯했다가 또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고 내일이 되면 또 존재가 부끄럽다. 남마다 남을 탓하면서 잠깐 피해 가는 하루보다는 내 잘못임을 말하면서 나를 키워나가는 하루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핑계는 믿음을 지연시키는 유혹이다”

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실 때면 꼭 세 사람 몫을 시켜 놓고 마시곤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는 전쟁 때 같이 싸우다 죽은 김병장을 생각하며 마시고 또 하나는 이일병을 생각하며 마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두 사람 몫만 시켜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오늘은 어떻게 두 사람 몫만 시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자신은 술을 끊었는데 여전히 두 사람의 몫의 술은 마시고 있는거죠. 그러면 내가 술 먹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먼저 죽은 김병장과 이 일병이 먹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못된 아이가 된 것은 당신 아들과 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을 만나서부터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두 죄인 된 사람들의 허무한 외침이다.

핑계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 아담도 먹게 된다. 하나님의 불 같은 호통 앞에서 아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핑계하고 만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 했던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듯 모든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만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묻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3)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나 탓의 죄악’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광주벤티엘교회 손성현 원로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던 벤티엘 수양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참 착한 사람인데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불러다 타이르고 마약에서 손을 뗄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루는 그 젊은이가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 아무리 마약에서 손을 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내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 이름이 ‘김해도’ 인데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최초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게 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켰다.(창세기 3:12-13).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의 길 앞에서 종종 핑계를 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봤어요.”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가기 힘들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사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자기 보호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하셨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

다. 참된 사랑은 화해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요한복음 5:8). 그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단 한 마디도 핑계하지 않고 믿고 일어났다. 핑계가 아니라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핑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다. 모세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하셨다(출애굽기 4:10-11).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보신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고린도전서 9:16)이라며 핑계 없이 사명을 완수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 바로 믿는자의 길인 것이다.

핑계는 오늘의 사명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 순종할 때도 내일의 기적을 예비한다. 하나님은 핑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찾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핑계를 잘 만드는 습관 때문이다.” A.W. 토저(A.W. Tozer)는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이 보이기 전에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같이 보일 때까지 핑계를 댈다.” 디트리히 보히퍼(Dietrich Bonhoeffer)는 “순종은 즉각적인 반응이며,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다.”라고 말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한국교회 안에는 나이 많고 경륜 있는 어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목회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한국교회의 눈부신 부흥기를 이끌었던 산증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각자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땅과 눈물, 그리고 목묵한 인내는 80~9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낸 기초였습니다. 그 시절 개신교는

강단에서조차 폭력적 언어가 난무하고, 광장에서는 신앙이 정치적 구호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젊은이들은 말없이 떠납니다. 이제는 “예배가 싫다”, “목사님이 무섭다”, “교회가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자신의 삶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교계의 어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광훈 류, 손헌보 류의 언행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데, 아들을 정면으로 꾸짖는 어른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두둔하고, 그들의 언어 폭력을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라 감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에 “시원하다”, “용기 있다”며 박수

부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예배를 잠깐의 혐오와 저주의 언어를 향해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외쳐주십시오. 복음을 정치로 포장하는 이들을 향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좌절하고 냉소하던 청년들이 다시 귀를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비웃던 이들이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진리를 말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곳으로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자리를 지키는 어른보다, 진실을 외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들의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신앙을 붙잡을 힘을 얻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열매값에 무너지지 않도록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어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진일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리더를 세우는 헬퍼십의 소명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다. 그런데 지도층을 포함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다.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했다. 자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러자 모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다. 그때 스가나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율법대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니 그 뜻을 믿고 나가라고 에스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이 개혁은 꼭 필요했지만 매우 힘든 일이었다. 율법을 지키고

회복하려면 가정들이 무수하게 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스가나의 후원으로 에스라가 힘을 얻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행할 것을 명세하게 했다(에10:5).

진정한 개혁은 이렇게 리더십과 헬퍼십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헬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스가나처럼 헬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평생 사역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물론 리더도 꼭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헬퍼의 역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 일하는 사랑의 기도

하나님, 한국 교회에도, 우리 일터에도 리더를 돕는 헬퍼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헬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리더십을 돕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대한 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 회 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적을 만물이 내는 때(히4:12) · 주일오전 1부 7:30, 2부 9:30, 3부 11:10, 4부 12:50, 5부 2:30, 6부 4:30 담임 김준태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안구 상봉동 76-12 (대표전화: 062191-9999 FAX: 0621952-5304)	대한 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교회 표어: 예수사랑 기쁨사랑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수요일예배 7:00, 금요일기도회 7:30 담임 이철재 목사 62244 광주광역시 광안구 도전동 124-10 (도전동 356-11) (대표전화: 0621371-9206)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 창 교 회 표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1:30, 수요일예배 7:00 담임 김승현 목사 62287 광주광역시 광안구 구원동 291(신창동) (대표전화: 0621953-537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표어: '빛'이여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마 5:14-16, 마 28:19-20, 마 28:20-21)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희성 목사 61748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동 41번길 31(노사동) (대표전화: 0624676-8831)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서남교회 표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왕 15:26, 사 54:4, 살 2:15) · 주일오전 1부 7: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택현 목사 61057 광주광역시 남구 천대동 12 (대표전화: 0621652-1004 FAX: 0621671-3313)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주께 구하라, 가라 할렘(왕 2:1)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목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고석원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동산로 43 (대표전화: 0621366-3058 FAX: 0621369-3058)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은평교회 표어: 사랑의 삶 전도 선교 구제 장학 고아집 (히 13:16) · 주일오전 10:40, 주일오후 1:40, 수요일예배 7:15, 금요일기도회 8: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병택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13번길 54-1(은평동) (대표전화: 0621375-7962 FAX: 0621375-7962)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 회 망 교 회 표어: 삶에 새활력을 주는 교회 · 주일오전 1부 7:3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30 담임 허태호 목사 62253 광주광역시 광안구 천대동 79-3번지 (대표전화: 0621971-9190 FAX: 0621972-9190)	대한 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표어: '빛과 소망'이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 주일오전 1부 8: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사라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원동 11번길 47 (대표전화: 0621953-4620 FAX: 0621953-5522)	대한 예수교장로회 서 광 주 교 회 표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 (왕 2:8) ·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규성 목사 61648 광주광역시 남구 북로동 99번길 10 (대표전화: 0621365-7004 FAX: 0621365-7004)	대한 예수교장로회 동서남북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산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목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혜영 목사 506-301 광주광역시 광안구 도전동 77-25 (대표전화: 0621956-0114 FAX: 0621956-0114)	대한 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표어: '내가 여기 왔나이다' (왕 2:1)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목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서한국 목사 57222 장성군 장성읍 장성로 103번길 6 (대표전화: 0611393-4951 FAX: 0611393-4552)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원벤티엘교회 표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왕 1:22)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목요일예배 7:0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광수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13번길 7-1 (명동동) (대표전화: 0621226-1009)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산수교회 표어: 새 삶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마 28:19) · 주일오전 1부 7:5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목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임준수 목사 61411 광주광역시 남구 동문동 173 (대표전화: 0621263-0623 FAX: 0621264-8750)	대한 예수교장로회 여수영락교회 표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 주일오전 1부 8: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목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성기 목사 58754 전남 여수시 신월로 668-1(여수동) (대표전화: 061641-6510-3 FAX: 061641-651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백운교회 표어: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고전 12:13)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2: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목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정호 목사 61660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7번길 8 (대표전화: 0621651-0388 FAX: 0621651-0388)	대한 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 · 주일예배 11:00, 수요일기도회 7:00, 목요일예배 7:00, 금요일예배 7:0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정호 목사 나주 봉황면 죽곡길 2(봉황면사무소) bcc-1218@namsil.net (전화: 010-6632-1033(박정호 목사))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표어: 참 교회가 있는 행복한 교회 (왕 2:4)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2: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목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서한국 목사 61614 광주광역시 남구 문정동 62번길 7 (대표전화: 0621352-9191, 364-7171 FAX: 364-7175)